



工業所有權制度 全面 改善

法令 正作業班 및 審議委員도 구성

工業所有權制度가 全面 改善된다. 特許廳은 최근 工業所有權 관련 法令의 정비와 辨理士를 통해 實務上의 문제등을 수렴해 이를 改善함으로써 보다 合理的인 制度로 改善해 나갈 방침이다. 特許廳은 이를 위해 工業所有權 관계 法令 改正을 위해 이미 作業班을 구성했으며, 實務的인 改善을 위해 「工業所有權 實務協議會」도 구성했다.

特許廳은 PCT 第2章인 國際豫備審査의 유보 철회에 따른 國內 立法과 工業所有權 관계 法令의 全面的인 整備보완을 위해 「法令改正作業班」을 구성했다.

特許法改正作業班은 金英華 抗告審判官을 班長으로 관련 審査擔當官 및 審査官 12명과 辨理士 5名으로 구성되었으며, 實用新案法 改正作業班은 黃允淸 抗告審判官을 班長으로 관련 審査擔當官 및 審査官 7명과 辨理士 1名으로 구성되었다.

또 意匠法 改正作業班은 徐廷旭 抗告審判官을 班長으로 관련 審査擔當官 및 審査官 6명과 辨理士 3名으로 구성되었으며, 商標法 改正作業班은 金淳

審査1局長을 班長으로 관련 審査擔當官 및 審査官 8명과 辨理士 4名으로 구성되었다.

이와함께 總括業務는 法務擔當官이 맡도록 했다.

工業所有權 法令改正作業은 올해중에 公청회를 거쳐 改正案을 마련, 立法豫告를 마칠도록 되어 있다.

한편 工業所有權實務協議會

는 과거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를 폐지하고, 工業所有權 業務의 전반에 걸쳐 審査·審判·出願·登錄 등 實務 수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과 辨理士등 工業所有權 관련 業界에서 제기되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밀도 있게 審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구성되었다.

90년이후 니스分類채택 檢討

國際紛爭해소 및 海外出願容易위해

特許廳은 현행 우리나라 固有의 商品 및 서어비스 分類를 改正, 오는 90年度 이후부터 NICE分類(商品 및 서어비스의 國際分類) 채택을 檢討중에 있다.

特許廳에 따르면 各國間 商品分類가 相異함으로써 야기되는 國際紛爭 및 번잡함을 해소하고 海外出願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이의 채택을 檢討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特許廳은 서어비스 分類의 導入과 관련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商品分類는 이달부터 90년말까지 分類作業을 完了할 방침이다.

향후 채택할 NICE分類를 현행 分類와 비교해보면 商品分의 경우 NICE 分類는 34個類(현행 53個類)·1백53個群(현행 2백 66個群)·8천 8백여個 商品(현행 2천8백여個)으로 分類되며, 서어비스의 경우 현행 12個類(12個)에서 8個類(7백여個)로 分類된다.

이의 分類기준은 우리나라가 판매주의 및 용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 分類는 完製品의 경우 기능위주 및 産業分野別 용도주의, 原料·半製品의 경우 구성주의를, 部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상품주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